

## THE PEARL OF TORAH

Deuteronomy 1:1-3:22, Isaiah 1:1-27, Matthew 24:1-22

### The Pearl

The hidden pearl connecting these passages is this: **YHWH's people are not preserved by the permanence of their surroundings, but by the endurance of covenant faithfulness within them.**

The wilderness generation could not enter merely because they belonged to Yisrael. Yerushalayim could not remain secure merely because it possessed the Temple. The disciples could not endure merely because they knew the signs of the end. In every generation, the decisive question is the same: **Will the heart remain faithful to YHWH?**

이 본문들을 연결하는 숨겨진 진주는 이것이다. 야훼의 백성을 보존하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속성이 아니라 그들 안에 끝까지 지속되는 언약적 신실함이다.

광야 세대는 단지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예루살렘은 단지 성전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할 수 없었다. 제자들은 단지 마지막 때의 표징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견딜 수 없었다. 모든 세대에서 결정적인 질문은 동일하다. **마음이 야훼께 끝까지 신실하게 남을 것인가?**

---

### Final Synthesis

**Devarim 1–3** teaches that the greatest obstacle to entering the promise is not the size of the enemy but the unbelief of the heart.

**신명기 1–3 장**은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원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불신앙임을 가르친다.

**Yishayahu 1:1–27** teaches that the greatest threat to a holy city is not an external army but internal covenant corruption.

**이사야 1:1–27** 은 거룩한 성읍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외부의 군대가 아니라 내부의 언약적 부패임을 가르친다.

**Matthew 24:1–22** teaches that the greatest danger in tribulation is not merely physical suffering but deception, betrayal, lawlessness, and the cooling of love.

**마태복음 24:1–22** 은 환난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미혹과 배신과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임을 가르친다.

Together they reveal one message: **YHWH may allow structures to shake in order to reveal what cannot be shaken.** The wilderness shook Yisrael's confidence. Yishayahu announced the shaking of corrupt Yerushalayim. Yehoshua announced the

이 세 본문은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드러낸다.

**야훼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구조물들이 흔들리도록 허용하실 수 있다.** 광야는

shaking of the Temple and the nations. Yet through every shaking, YHWH seeks a people who trust Him, practice righteousness, preserve love, reject deception, and endure to the end.

이스라엘의 확신을 흔들었다. 이사야는 부패한 예루살렘의 흔들림을 선포했다. 예호슈아께서는 성전과 민족들의 흔들림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모든 흔들림을 통하여 야훼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를 행하며, 사랑을 지키고, 미혹을 거부하며, 끝까지 견디는 백성을 찾으신다.